

‘나의 삼촌 브루스리’  
천명관 지음



## 삼촌은 이소룡 짝퐁... 삶은 그저 사는 것

최근 읽은 소설 중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했던 최진영의 장편 소설 ‘끝나지 않은 노래’가 꽤 흥미로웠다.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입담 좋게 풀어낸 최씨의 소설은 손에 잡고 한번에 읽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그때 떠오른 책이 있었다.

2004년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인 천명관의 ‘고래’였다. 수년만에 다시 꺼내 읽은 ‘고래’는 타고난 이야기꾼인 천씨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었다.

지난해 ‘고령화 가족’을 내놓았던 천명관의 새 책 ‘나의 삼촌 브루스리’ (전 2권)는 ‘고래’에서 보여줬던 천씨의 장점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책이다. 긴 호흡으로 시대를 통과하며 그가 보여주는 인간 군상들은 영화를 보는 듯한 탄탄한 이야기에 실려 독자들을 빨아들인다.

특히 본격적인 스토리가 펼쳐지기 전 등장하는, ‘산다는 것은 그저 순전히 사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그저 사는 것이다’라는 이소룡의 말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다.

‘나의 삼촌 브루스리’의 배경은 1973년 여름, 이소룡이 죽은 날이다. 주인공은 화자인 ‘나의 삼촌, 나의 표현에 의하면 삼촌은 ‘이소룡의 짝퐁’으로 출발했으나 긴 세월을 거쳐 인생의 구석진 곳을 떠돌며 꾸역꾸역 살아남아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두 증명해준 사내다.

할아버지가 밖에서 낚아온 서술로 ‘나의 집에 들어온 삼촌은 당시 모든 남자들의 우상이었던 이소룡에게서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인생에 빛을 밝혀 줄 무언가를 기대하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소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사(史)를 살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그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다. 앞으로만 내달렸던 산업화 시대였던 1970년대, 군부독재와 그에 대항하는 민주화혁명의 시대였던 1980년대, 본격적인 자본주의 시대였던 1990년대를 거치며 ‘삼촌’은 삶의 나이테를 하나 하나 새겨나간다.

소설의 주배경은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냈던 동전을, 무작정 상경해 찾아들었던 서울의 북경반점, 동전읍의 건달들과 다시 만난 삼촌교육대, 액션 대역배우로 밥벌이를 하며 머물렀던 충무로다.

그곳에서 만난 삼촌의 첫사랑인 여배우 영진, 강래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역전과 강래 도치, 삼촌교육대의 교관들, 화교 출신 중공업 주인들이 이야기를 함께 이끌어 간다.

저자는 현대인의 삶이란 어느 정도 비극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설이 이루지 못한 사람 이야기, 부서진 꿈과 좌절된 욕망이자 구원 없는 실패담’이라고 정의하는 저자는 소설을 읽는 이유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까지 인터넷 서점 ‘에스24’ 블로그를 통해 독자들을 만난 작품이지만, 연재 당시와는 다른 결말을 택한 점은 이채롭다.

그로테스크함과 독특한 매력, 탄탄한 문장으로 무장했던 ‘고래’의 강력한 힘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쉽사리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의 힘’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담·각권 1만2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족의 행복은 없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한기연 지음

지난 15년(1995년~20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1.8배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1.3배 개선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가족개념 약화가 삶의 질 개선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같은 기간 1.5건에서 2.3건으로, 자살자는 인구 10만명당 10.8명에서 31.2명으로 늘었다.

상담심리 전문가 한기연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가족 문제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심리학적 행동 지침을 제시해 가족에게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가 말하는 ‘가족을 벗어나다’는 의미는 가족을 버리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세상을 똑바로 서기 위해 가족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떠나 심리적·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가족의 행복은 없다는 것이다. 가족의 행복에는 반드시 나의 행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족 문제에 대한 냉철한 해석과 명확한 해결 방법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씨네21북스·1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책 읽는 삶은 얼마나 깊고 기쁘는가?

‘살아있는 도서관’

장동석 지음

시인 장석주는 제대로 된 ‘니체 전집’을 읽고 싶어 전세금을 빼 출판사를 차려 니체 전집을 만들었다. 그는 1년에 1000여권, 일 주일에 2박스 분량의 책을 사고 읽는다고 한다. 또 변호사 김형태는 책하면 ‘플랜더스의 개’가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율곡불교 정진없이 읽었던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북클럽리스트 장동석의 ‘살아있는 도서관’은 책 읽기의 기쁨을 전해주고, 고미숙·고은·김두식·김삼웅·김형태·박이문·박재순·이이화·이현우·장석주·장희익·정진홍·조광재 등 천천히 오래도록 책과 공부를 탐한 한국의 지성 23인의 삶 속, 책 이야기를 들려준다.

역사학자 이이화는 책 속 감동의 세계를 헤매다 전



쟁 통에 가슴까지 한다. 한문학만 고집하는 부친에게서 벗어나 고아원에 가면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나선 모험이었다. 하지만 그가 읽을 수 있던 유일한 책은 ‘지느고사’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여관보이’를 전전하며 길에서 글자가 박힌 것은 모두 주워 읽었다고 한다.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는 책이라는 렌즈를 벗고 세상을 보고자, 책 정리를 하다 보니 “결국 남은 책이 애인이 준 책이더라”고 회상했다.

저자는 “많은 지성들은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가슴 먹먹하게 한 책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현암사·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교통사고 후 생긴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세상...

‘원더보이’

김연수 지음

소설가 김연수 만큼 부지런한 작가도 없는 듯하다. 작품을 내놓는 속도가 엄청나다.

김연수의 신작 장편소설 ‘원더보이’는 시간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열 다섯살 되던 해 알아버린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지난 2008년 청소년문예지 ‘뫼’에 4회 연재하다 중단한 작품으로 저자는 3년만에 전혀 다른 모습의 소설로 내놓았다.

1984년 열 다섯 살엔 정훈은 트럭에서 과일을 파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일주일만에 깨어난 정훈은 남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비상한 재주를 갖게 되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버지는 남과간첩의 차를 향해 뛰어든 애국지사가 되어 있다.

새로운 능력을 갖게된 정훈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권대령과의 만남으로 고문실에서 최조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신을 낳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하지만 권대령에게서 도망쳐 나온 후 세상에서 가장 화염병을 잘 던지는 선재형, 자신 때문에 첫사랑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남장을 하고 다니는 강도형 등과의 만남은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을 알게 해준다.

〈문학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다케시의 그림 노트·유쾌한 창조력

‘다케시의 낙서 입문’

기타노 다케시 지음



광주 출신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가 쓴 ‘다케시의 낙서 입문’을 번역했다. 다케시는 ‘하나비’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화실을 마련했다고 소개한다.

그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아직 ‘바이엘’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화가로 변신한 다케시의 그

림 솜씨가 담겨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보드에 마커와 포스터컬러를 이용해 불화, 불꽃놀이, 용 등을 강렬한 색채로 그려내 우스꽝스러운 낙서이자 풍자화 같은 느낌을 준다.

또 그림을 그린 과정과 느낌, 당시의 상황을 짚막한 글을 곁들여 설명한다. 다케시의 성장과정과 예술에 대한 열망 등을 솔직한 문체로 풀어냈다.

〈세미콜론·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DJ, 정계은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김대중 다시...’

장성민·김종혁 지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에서 20여년 동안 비서로 일한 장성민 김대중재단 이사와 김종혁 중앙SUNDAY 편집국장이다 지난해 중앙SUNDAY에 연재된 ‘인간 김대중 이야기’를 보강해 ‘김대중 다시 정권교체를 말한다’를 냈다.

DJ의 정계 은퇴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1천825일 동안 김 전 대통령의 행적을 담았다.

책은 DJ가 지난 1992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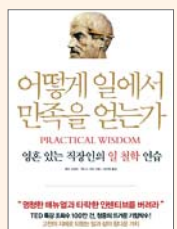
새벽 동고동택에서 이희호 여사를 앞에 두고 정계 은퇴 선언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머물며 새 출발을 모색한 여정, 1995년 7월 정계 복귀를 발표하기까지 긴박했던 막전막후, 1997년 DJP 연합으로 기적 같은 대선 승리를 일군 파노라마 등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중앙books·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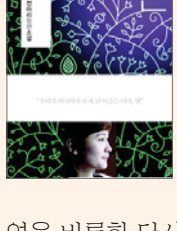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펜실베이니아 스워스모어 대학에서 사회행동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리 슈워츠가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제시한 책. 심리학과 사회학으로 우리의 일터를 분석하고, 고대의 철학자들이 창안한 ‘일 철학’을 통해 해법을 제시한다. 현대인들이 일에서 마주치는 기술적, 도덕적 문제들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풀이와 종묘를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종묘 둘러보기. 종묘는 조선의 임금의 받드는 신전이다. 종묘의 정전 19실(室)에는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가 모셔져 있다. 또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옮겨진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황태자의 신주가 있다. 모두 조선의 임금과 왕후, 황태자다. 〈다음생각·1만4000원〉

▲방주로 오세요=지구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넓이 39.5km, 높이 1.2km의 땅이 솟아오른다. 사람들은 그곳을 ‘공중정원’으로 부른다. 구병모신작 소설 속 이야기다. 그로부터 20년 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 궤도를 되찾았을 무렵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공중정원에 초고층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초호화 도시를 건설한다. 〈문학과지성사·9000원〉

▲앤=전아리의 장편소설. 바닷가 동네에 살던 다섯 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못 남학생들이 선망하던 여고생 ‘앤’을 함께 죽이게 된다. 이들 중 여배우가 된 신주홍, 그리고 사건 직후부터 죽 신주홍과 관계를 맺어온 화자 해영을 비롯한 당시 친구들은 기원의 호출을 받고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관계는 꼬여만 간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서로 침묵하던 이들의 관계는 의심과 갈등으로 치닫는다. 〈은행나무·1만1500원〉



▲탐욕 주식회사=18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윤리와 시장 간 엇박자처럼 나타나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 책은 기업의 도덕성이 점점 실종된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현대 사회의 비즈니스 모델이 합리주의, 공리주의를 내세워 모순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책맥북스·1만5000원〉

▲소원밥상=마인드 푸드 전도사로 꽃, 음식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온 칼럼니스트 권오민씨가 낸 산문집. 작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믿는 저자가 음식을 통해 추억과 좋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영양분도 섭취하는 ‘마인드 푸드’를 추구하면서 얻은 음식 철학을 소개한다. 저자는 음식 하나에도 무조건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음의 숲·1만3000원〉

▲왕의 영혼, 조선의 비밀을 말한다=종묘에 관한 21가지 궁중음



▲안아줘도 되겠니?=평범한 마을에 찾아온 이방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또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도 만들어 준다. 〈국민서관·1만원〉

▲무지개 눈물=아이들의 시선으로 눈물의 의미를 풀어낸 그림책. 아이들이 자라면서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울지 않고 두려움을 견디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이들에게 울음은 마음 속에 있는 슬픔과 짜증, 두려움 등의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울음을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다. 〈창제평년·1만1000원〉

▲우리 몸=어깨, 눈, 입, 목, 손목, 다리, 발 등 아이들에게 우리 몸 곳곳을 흥미롭게 알려준다. 신나게 놀이를 하는 주인공들의 몸을 예로 들

어 설명하고, 우리 몸 구성 요소의 이름과 기능 등에 대해 알려준다. 귀를 설명할 때는 단순히 듣는 기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소음을 함께 소개한다. 〈사파리·1만2000원〉

▲모두 모두 정말 좋아=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이를 위한 그림책.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만나는 곰인형, 노란 칠삭, 초록 신발, 귀여운 새까, 길에 있는 돌맹이 등 주변의 작은 사물과 생명들을 소개한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도와 준다. 〈웅진주니어·1만원〉

▲이야기할아버지의 이상한 밤=민속학자 임석재씨의 손녀 임혜령씨가 자신의 어린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줬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를 동화로 풀어냈다. 해를 불러내려고 이런 저런 괴담을 내는 환상적인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이야기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한림출판사·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